

## 식민지기 본점은행의 설립과 해체: 부산 3행의 경우\*

김호범\*\* · 김대래\*\*\* · 김수진\*\*\*\*

**요약:** 본고는 1912년부터 부산에 존재했던 경남(구포)은행, 동래은행과 부산상업은행이 매수·합병된 1935년경까지 은행의 설립과 경영상의 특징, 합병과정과 이를 통해서 나타난 조선총독부의 은행합병 정책의 성격 등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 세 은행의 대주주나 경영자들은 자신들의 기업체 운영에 은행 자금을 이용하려 했다. 1919년대에 들어서 영업부진에 빠진 경남은행은 1928년에 대구은행과 합병하여 대구상공은행이 되었고, 1928년의 개정된 은행령에 규정된 자본금 200만 원을 채우지 못한 동래은행은 광주의 호남은행에, 부산상업은행은 부실대출이 화근이 되어 1935년에 일본인이 소유-지배하는 조선상업은행에 흡수되었다. 부산의 금융계는 경기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거나 총독부에 대해 자신의 이해를 대변해 줄 경제단체를 전혀 갖추지 못했고, 조선총독부는 은행 합병을 통해서 식민지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해갔다.

**주요어:** 보통은행, 본점은행, 구포(경남)은행, 동래은행, 부산상업은행, 은행령, 은행합병

### 1. 서론

본고의 목적은 일제시기 부산지역에 존재했던 구포(경남)은행, 동래은행, 부산상업은행이란 세 은행의 설립 과정, 경영 그리고 합병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은행사를 재구성해보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조선총독부의 본점은행에 대한 합병정책이 부산지역의 은행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합병정책의 기본 의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일제시기 본점은행의 설립에 나타난 특징과 그 역할에 대해서는 대체로 1970년대 이후에 연구가 진행

되었다. 고승제(1970)와 조기준(1973)은 기업가사의 측면에서 본점은행들의 설립 주체, 경영, 합병 문제 등을 다루었고, 서광운(1972)은 서울과 영호남의 민족계 은행들의 경영문제를 분석하였다.堀和生(1985)은 한국과 일본계 본점은행의 설립 주체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통계를 이용하여 경영에 나타난 특징들을 검토하였다. 배영목(1990)은 일제시기의 통화, 금리, 보통은행을 포함한 특수은행들의 경영을 통계를 통해서 검토하였다. 윤석범 등(1996)은 보통은행의 경영환경과 합병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연구하였다. 이영훈 등(2004)은 식민지기 은행령의 발포 등 은행제도의 발달과 본점은행의 설립, 본점은행의 합병과 소유경영의 변화, 전시체제하 일반은행의 경영에 대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321-B00029).

\*\*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신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해서 분석하고 있다. 최상오(2006)는 조선상업은행의 사례를 통해서 주식소유의 변동, 조선은행과의 관계 등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금융사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지역은행사 재구성의 측면에서 몇몇 연구가 나온 바 있는데, 김동철(2001)과 차철욱(2001)은 각각 부산지역의 동래은행과 구포(경남)은행의 자료를 발굴하여 그 설립 과정과 설립자 및 경영인의 특징, 경영성과와 합병과정 등을 검토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들은 개별은행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지역 은행사의 총체적 이해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부산지역 은행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서 부산에 존재했던 세 은행의 설립에 나타난 특징을 비교하고 합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파악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 연구자들의 기업가사에 대한 분석과 조선총독부가 남긴 통계와 회고록 등 각종 문헌을 이용하면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은행의 발전과 합병 등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은행이 최초로 들어선 곳은 부산이다. 1878년에 일본의 第一銀行이 부산에 출장소를 설치하였던 것이다. 제일은행은 그 후 원산(1880), 인천(1883), 서울(1885: 1905년 한국총지점으로 승격) 등에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였고, 일본 長崎의 十八銀行과 長崎貯蓄銀行, 大阪의 五十八銀行 등도 개항장에 지점을 설치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의 은행들이 진출한지 이십년이 지나자 한국인도 최초의 은행인 朝鮮銀行(1896)을 비롯하여 韓興銀行, 大韓銀行, 帝國銀行 등을 설립하였지만 이들 은행은 단명에 그쳤다.<sup>1)</sup> 경영의 지속성 면에서 의미있는 최초의 한국인 은행은 1897년 설립된 漢城銀行이었고 1899년에는 大韓天一銀行, 1906년에는 韓一銀行이 그 뒤를 이었다.<sup>2)</sup> 한국에서 보통은행의 설립이 본격화된 것은 1912년 「은행령」이후의 일이다. 은행령으로 전국에서 은행설립 붐이 일기 시작한 것과 때맞추어 부산에서도 민간인에 의해 오늘날의 일반은행에

대당하는 보통은행들이 창립되었다. 그렇지만 부산에 근거를 둔 은행들은 1920년대 들어서 불황의 직격탄을 맞아 재무구조가 악화되거나 총독부의 은행합병 정책에 의해 타 지역의 은행에 합병되기 시작하여 1935년을 끝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龜浦銀行이 창립되어 부산에서 본점은행 시대가 열린 1912년경부터 釜山商業銀行이 매수·합병되어 본점은행 시대가 마감되는 1935년경까지 은행 설립과 경영, 합병과정에 나타난 특징을 중심으로 본점은행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은행령과 본점은행의 설립

### 1) 본점은행 설립의 특징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금융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은 19세기 말부터이지만<sup>3)</sup>, 정화의 준비부족과 일본의 압력으로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금융기관의 기본 체계는 일제가 1905년에 강제로 실시한 화폐정리사업을 계기로 갖추어져 갔다.<sup>4)</sup>

개항 이후 강제병탄에 이르는 시기에 부산에는 여러 종류의 금융기관의 지점 및 출장소가 존재했다. 1878년에 부산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일본의 사립은행인 제일은행이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개항과 더불어 부산에 은행이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즉 개항 연도인 1876년에 일본인 大倉喜八郎과 제일은행 두취 澁澤榮一이 합자하여 자본금 5만 원으로 부산의 일본인 거류지에 사립은행 형식의 기관을 창립하였는데, 이 은행이 2년 후 제일은행 부산지점으로 발족했다고 한다(박원표, p.18). 이와같이 일본인들이 개항하자마자 부산에 은행을 설립했던 것은 부산이 지리적인 면에서 한국시장 진출의 전초기지였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1910년까지 부산에는 일본의 백삼십은

행(1893년 9월), 십팔은행(1896년 7월), 周防銀行(1908년 7월)이 지점을 설치하였다. 또한 산업금융을 담당하기 위한 경상농공은행이 십팔은행과 같은 시기에 초량출장소를 열었으며, 1910년 5월에는 조선은행 부산출장소가 문을 열었다(박원표, 부산금융사, 향도부산, 제7호, p.19).<sup>5)</sup> 따라서 일제에 의한 병탄 직전까지 부산에는 제일은행을 비롯하여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6행이 개점하였다. 그러나 모두 지점 및 출장소였기 때문에 본점은행 시대는 1910년대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근대금융체제의 틀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05년 이후이지만 금융기관이 본격적으로 양적·질적 발전을 이루어 간 것은 일제하였다. 특히 「은행령」은 은행 설립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총독부는 1912년 10월 제령 제5호로 「은행령」 및 부령(府令) 제26호 동령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하였다(朝鮮總督府, 1912, p.165, 朝鮮殖産銀行, p.20). 조선총독부가 은행령을 제정한 이유는 한국인이 설립한 보통은행은 「은행조례」(1906년 3월 칙령 제12호), 일본인이 설립한 은행은 「한국에서의 은행업에 관한 규칙」(韓國ニ於ケル銀行業ニ關スル規則, 1907년 5월, 통감부령 제20호)으로 각각 다른 법령의 규제를 받고 있어서 한국인과 일본인의 “합동경영은행의 설립”을 위해 불편함을 제거하고 준거를 통일할 필요가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朝鮮總督府, 1912, pp.155-156). 두 법령을 통일한 은행령이 은행 설립을 촉진한 이유는 은행령에서 일반은행 업무를 규정하여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금융기관을 운영할 수 없게 하였기 때문이다. 즉 은행령은 “제1조, 점포를 공개하여 영업하면서 증권의 할인, 환사업, 또는 예금 및 대부를 하는 자를 은행이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은행업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은행조례에서는 어음할인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sup>6)</sup> 일본인 은행에 적용되는 한국에서의 은행업에 관한 규칙에는 은행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다.<sup>7)</sup> 그런데 은행령은 은행의 주요 업무를 증권할인, 환, 예금 및 대부로 정의하

고 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기존의 대부업으로는 예금이나 어음(手形)할인에 의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은행설립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은행령 제정은 대금회사는 물론 그 고객의 자금난을 야기함으로써 은행 설립을 촉진했다(이영훈·배영목 등, pp.161-162).

이리하여 1912년 이후 많은 은행들이 설립되기 시작했는데 1921년 상반기에는 가장 많은 21행, 지점 및 출장소수 45군데에 이르렀다(朝鮮總督府, 1939년 조, p.34).<sup>8)</sup> 은행 설립은 은행령이 공포된 1912년과 1913년 및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호황이었던 1916년 이후에 집중된다. 1912년과 1913년에는 전국에 7행이 설립된 반면 1914년과 1915년에는 불황으로 은행설립 신청이 불허되거나 설립신청이 거의 없어졌다가 1918년 이후 1920년대 초의 기간 동안에는 무려 10행이 설립되었다(김호범, pp.94-98). 1910년대의 은행 설립은 회사령과 마찬가지로 허가제였지만 총독부는 은행 설립에 대해서는 대체로 유화적 태도를 갖고 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文定昌은 ① 식민지의 화폐경제를 촉진시켜 일본상품시장으로 발전시키고, ② 한국인들은 은행 설립을 위해 일본계은행에서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였는데, 일본의 토지수탈과 일본금융자본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③ 한국인의 은행 설립을 인가하여 친일세력을 양성하고 자산을 노출시켜 비경제부문 특히 독립운동자금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문정창, pp.164-165). 이 중에서 맨 마지막의 정치적 요인도 은행 설립 허가의 한 원인이었겠지만,<sup>9)</sup> 주된 원인은 역시 경제적 인 데 있었다. 1913년 조선상업회소연합회나 인천상업회소소가 원활한 자금공급기관의 설립을 총독부에 요청하거나(波形弼一, p.446-447, 배영목, pp.177-178에서 재인용), 1920년대 초까지 각지에 20여개의 본점은행이 설립된 것으로 볼 때 식민지사회의 화폐경제화의 진전과 경제규모의 양적 팽창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업경영에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한국인 유력자들도 은행 설립에 적극적이었다.

1920년대 초까지 설립된 은행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은행령의 의도대로 한국인과 일본인의 합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인이 설립을 주도한 은행에 일본인이 지배인으로서 고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발기인에 포함된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면, 경영면에서 한국계와 일본계로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은행 설립에 관여한 주요 인물들을 분석하여 보면, 한국인들은 대부분 지주이거나 미국상 등 상업 활동을 통해서 부를 집적한 자들이고, 일본인은 한국에 진출한 이후 상공업을 통해서 재산을 축적한 후 은행 경영에 투신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계 은행의 설립자들을 살펴보면, 일제병탄 이전에 설립된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등은 대체로 구한국 조정의 고급관료 및 귀족세력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1910년대에 설립된 은행의 발기인 및 대주주·경영인들은 보다 서민적 색채가 강했다. 물론 이들 중에서 大邱銀行의 鄭在學을 비롯한 7인, 慶一銀行의 대주주였던 張吉相·張稷相과 같은 인물들은 양반지주로서 은행 경영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기본적으로 지방의 대지주로서 지방관리를 지낸 것에 지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귀족적 성격이 희박했다. 또한 三南銀行의 朴基順과 같이 미국상을 비롯한 상업 활동을 통해 재산을 축적한 후 지주로 변신한 사람, 湖西銀行의 金鎭燮처럼 상공업을 경영하면서 곧바로 은행 설립에 참여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sup>10)</sup> 따라서 당시에 은행 설립과 경영에 관여한 지주들은 대체로 개항기 이후에 급속히 성장한 신흥지주들로서 상공업자와 함께 식민지 경제의 화폐경제화의 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간 세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당시에 설립된 은행들은 인적이나 자금적 면에서 식민지 정부와는 관계가 없는 거의 완전한 민간은행이었다(堀和生, p.30).

이상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일제시기에 창립된 은행과 은행 설립 및 경영에 관여한 인물들의 특징은 부산지역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 2) 부산지역 은행의 창립

일제시대에 부산에 본점을 둔 보통은행(본점은행)으로서는 龜浦銀行(慶南銀行), 東萊銀行, 主一銀行, 釜山商業銀行의 총 4행이 설립되었다. 일제시기에 부산에서 은행이 4행이나 설립된 것은 개항 이후 일본과의 교역으로 부산이 급성장하면서 경남지역 지주 자본의 집결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1920년 당시 경남에서 10만 원 이상 소유한 한국인 자본가는 총 247명으로 경기, 전남 다음으로 많았는데, 이들 중 무려 130명이 부산부에 가까운 마산부, 동래군, 양산군, 김해군, 울산, 밀양, 함안, 창원, 의령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다(오미일, p.15). 한편, 이 네 은행 중에서 구포은행과 동래은행에 관한 금융자료는 연구자들에 의해 발굴되어 두 은행의 설립 과정과 영업내용, 그리고 합병 과정 등이 이미 상세하게 밝혀진 바 있다.<sup>11)</sup>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간략히 요약하면서 나머지 두 은행 즉 부산상업은행과 주일은행을 포함하여 4행의 설립에 나타난 특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표 1을 보면, 부산의 은행들도 은행령을 전후한 시기와 제1차 세계대전 말기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즉 구포은행과 부산상업은행은 은행령 공포를 계기로, 동래은행과 주일은행은 전쟁특수로 인한 호황기에 설립되었다.

부산에 설립된 4행 중에서 부산의 본점은행 시대를 연 최초의 은행은 한국계 구포은행이었다. 구포은행은 은행령 이후 신설된 한국인 최초의 (지방)은행이기도 했다. 구포에 은행이 들어선 것은 경남의 마산이나 진주 등 주변의 도시에 비하여 규모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의 요지이자 물화의 집산지였기 때문이다. 구포는 경북의 낙동강 상류까지 연결되어 영남의 다양한 생산물이 교환되는 상품거래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객주업을 비롯한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었다. 구포은행의 설립을 주도한 사람은 윤상은과 장우석이었다. 윤상은은 장우석과 함께 1909년 2월 11일에 자본금 25만 원의 龜浦貯蓄株式會社를 설립하

표 1. 부산지역 본점은행

	구포(경남)은행	부산상업은행	동래은행	주일은행
설립신청 (설립인가일)	(1912.4.19)	1912.7.29	1918.4.27 (1918.8.3)	1917.6.8 (1918.4.11)
영업개시일 (창립일)	1912.9.21 (1912.6.23)	1913.4.21 (1913.3.6)	1918.8.14 (1918.8.3)	1918.6.25 (1918.6.25)
공칭자본금	500,000원	500,000원	500,000원	500,000원
불입자본금	125,000원	125,000원	125,000원	25,000원
발기인	張禹錫, 姜信鎬, 全錫準, 尹相殷, 申永祚 등	萩野彌左衛門, 李圭直, 주로 일본인 수십명	尹炳準, 秋鍾燁, 朴仁杓, 吳太煥, 金炯贊 외 16인	金弘祚, 崔演國, 孫永嘏, 金錫準
주요임원	두취(李圭直)/전무취체역(張禹錫)/취체역(李圭直, 張禹錫, 尹炳準, 金福太, 大池忠助/상담역(迫間房太郎)/감사역(尹相殷, 吳道基吉)	대표취체역(萩野彌左衛門)/취체역(竹下佳隆, 山本純一, 小倉胖三郎, 張吉相, 萩野竹之助, 槇山助市)/감사역(松前才助, 豊泉徳次郎, 吉岡卯一郎, 松尾重信, 李圭直)	두취(尹炳準)/전무취체역(秋鍾燁)/취체역(尹炳準, 秋鍾燁, 朴仁杓, 吳太煥)/감사역(朴致瑛, 金炯贊, 金容祚)	취체역(金弘祚, 崔演國, 孫永嘏, 全錫準)/감사역(金尙憲, 嚴柱元)
본점 주소	부산부 좌이면 구포리 362번지→부산부 초량동 619번지(경남은행)	부산부 금평정 17번지	경남 동래군 동래면 복천동 232번지	부산부 초량동 553번지
합병 은행	대구은행 (1928. 8)	조선상업은행 (1935. 6. 22)	호남은행 (1933. 7. 20)	경남(구포)은행 (1919. 12. 26)
비고	한국계 1915년 1월 24일 경남은행으로 개칭	일본계	한국계	한국계

출처: 金浩範, pp.94-97.

東亞經濟時報史, 朝鮮銀行會社要錄(1921년판), pp.11-13, p.17.

徐光云, 韓國金融百年, pp.664-667, pp.710-711.

朝鮮總督府, 1913. 4. 25, 관보.

朝興銀行, 朝興銀行百年史, pp.154-155, pp.160-161, pp.208-209, pp.331-335.

朝興銀行, 朝興銀行六十年誌, pp.303-304.

韓國商業銀行, 韓國商業銀行沿革史, pp.23-24.

韓國商業銀行, 韓國商業銀行七十年史, p.58.

고 예금과 대출 등 은행업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다가 은행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1912년 6월 23일에 (주)구포은행으로 전환하고 같은 해 9월 21일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조흥은행, 1957, p.302). 그 후 구포은행은 1910년대 중반 이후 제1차 세계대전에 따른 호황에 힘입어 영업을 확장하기 위해 경남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초량지점을 본점으로 전환하였다.

부산상업은행은 萩野彌左衛門 등의 일본인이 중심이 되고 이규직 등 한국인 실업가도 약간 명 가세하여 1913년 3월 6일에 창립되었는데, 일본인들의 중심지인 琴平町에 본점을 두었다. 창립시 공칭자본금과 불입자본금은 구포은행과 마찬가지로 각각 50만 원(1주당 50원, 총 1만주), 12만 5천 원이었다(한국상업은행, 1998, p.238). 부산상업은행은 창립한지 얼마 되

지 않은 동년 6월 7일에 진해에 지점을 설치하였는데, 이후로도 지점 및 출장소를 6군데나 더 설치하여 부산지역 은행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영업망을 확장해 나갔다.

동래은행은 제1차 세계대전 중 전쟁특수의 호황기에 윤병준, 추종업, 박인표 등 동래지역의 유력자들이 설립을 주도했다. 동행은 공칭자본금 50만 원으로 조선총독부에 설립을 신청하여 1918년 8월 3일에 인가를 받았고, 8월 9일에는 제1회 주금 12만 5천원의 불입을 마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두취, 취체역, 감사역 등 임원을 선임하고, 8월 14일에 본점영업을 개시하였다(조흥은행, 1957, pp.333-334).

주일은행은 김홍조, 최연국 등 경남의 유력자 9명이 발기하여 1918년 6월 25에 창립되었으나, 설립등기일(창립일)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경남은행에 합병할 것을 결의하고 6개월 후인 동년 12월 26일에 경남은행에 흡수되어 해산했다(조흥은행, 1957, pp.331-332). 그러므로 부산에서 설립된 은행은 4행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한 것은 3행이었다. 한편, 1912년의 은행령 이후 1920년까지 설립 허가를 받지 못한 은행도 적지 않았는데, 설립 신청이 반려된 17건 중에서 부산지역은 3건이나 되었다(堀和生, 1985, 배영목, p.177). 이러한 사실은 개항과 더불어 팽창을 거듭하는 부산의 자금수요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근대 금융기관의 형성기에 나타난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은행 설립 이전에 대금회사나 대금업과 같은 유사은행 혹은 금융기능을 수행하는 모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특징은 한국계 은행의 설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앞에서 약간 언급한 바와 같이, 구포은행은 은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구포저축주식회사를 은행으로 전환한 것이다. 구포저축주식회사는 구포은행 설립의 주역이었던 장우석, 윤상은이 주동이 되어 설립한 대부회사로서 예대출과 같은 은행업무를 하였다. 윤상은과 장우석은 박운오와 함께 1908년 현재 지점은행인 周防銀行에 소액주주로 참가하고

있고, 앞의 두 사람은 1912년에는 1906년에 설립된 草梁一紀契의 임시총회에서 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했기 때문에(차철욱, p.8) 이미 이전부터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을 쌓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주도하에 구포저축주식회사 창립총회는 1909년 1월 15일 구포시장 내 본점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는데 자본금은 25,000원, 총 주식주 500주, 총 주주수 67명이었고, 취체역 사장에 윤상은, 감사역에 장우석과 姜信鏞, 지배인 申永祚 등이 선출되었다고 한다(차철욱, p.8, 조흥은행, 1997, p.154).<sup>12)</sup> 회사령 발표 후 구포저축주식회사 내에서는 단순한 대부업으로부터 은행으로 영업범위를 확대하고자 한 논의가 이미 제기된 바가 있었는데, 은행령 공포로 대부회사 경영에 타격을 입게 되자 윤상은은 기존 정관에 은행업을 더하여 설립을 신청하였다(윤상은, pp.13-14). 그러나 은행령에서 유사은행이 대부업과 은행업을 겸영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이 신청은 반려되었다. 이에 구포저축주식회사는 1912년에 자본금 50만 원, 총주식수 1만주로 허가조건을 갖추어 재차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았다.

동래은행의 설립에 관계한 사람들은 저축계의 일종인 蓬萊一紀契와 관계가 깊었다. 김동철(2001, pp.50-55)은 동래은행의 설립의 모체가 된 봉래일기계에 대해서 계의 형성 및 영업내용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봉래일기계는 1911년 5월 25일 朴履植, 金元魯, 李明浩, 金奉基, 秋鍾燁 등 주로 동래지역 출신의 유지들의 발기로 설립되었고 전당업이 주요 영업이었다. 대부업을 주로하는 봉래일기계 발기인 30명 중에서 동래은행의 창립 임원이나 주주가 된 이는 11명이고 구포은행과 관계를 맺었던 인물은 6명이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910년대 부산의 경제 및 금융계 인사들은 곧바로 은행을 창립한 것이 아니라 저축계 혹은 대부회사 등 과도적 형태의 금융회사나 유사 은행의 영업 경험을 쌓은 후에 은행 설립을 추진했던 것이다.

셋째, 은행 설립에 참여한 자산가들은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주로 지주이거나 상업활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었다. 특히 한국인들은 대체로 어떤 형태로든 토지경영과 관련을 맺거나 혹은 지주로서 부를 집적한 후 은행의 주주가 되거나 경영에 관여했고, 일본인들은 개항 이후 한국에 건너와 부를 이룩하여 토지를 매집했기 때문에 지주보다는 상공업 경영과 관계가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들이 지주가 많았던 것은 근대로의 이행기에 부의 주요 형태가 토지일 뿐만 아니라 토지자산이 근대화의 물적 토대였기 때문이다.

구포은행 설립의 주역인 윤상은은 구포의 대지주였고, 장우석은 물산객주 출신으로 미곡의 대일수출로 거상이 되었다. 후에 최대주주로 등장하여 두취가 된 이규직은 초량객주 출신이고 취체역의 김복태와 윤병준도 상인이었다. 본점을 부산으로 옮긴 후 윤상은은 지방의 지주를 주주로 유치하여 구포세력을 강화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경남은행 이후에는 주주와 경영진에서 상인적 색채가 더욱 짙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주구성의 변화를 보면, 1910년대 전반기에는 주로 부산의 상인들이 많았고, 1910년대 후반부터 경남 일대의 지주, 사업가들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차철욱, pp.15-17, 조흥은행, 1997, p.155).

동래은행 1기 주주 200명에는 구포, 초량, 기장, 의령, 울산, 창원 출신도 있지만 대다수는 동래 출신인 것으로 보이는데, 동래은행의 설립과 경영을 주관한 인물들의 대다수가 지주로서 부를 집적한 사람들이었다. 표 1의 동래은행 발기인 및 주요임원 중에서 박인표, 김형찬, 김용조, 오태환은 이들 지역의 (대)지주이면서 금융업, 상업 등에 종사하였다(김동철, pp.55-56, pp.62-63 참조). 창립 6개월 후 경남은행에 합병된 주일은행의 김홍조, 최연국 등 주요 주주 및 임원들에 대해서 윤상은은 사천, 하동, 양산 등 각지의 지주들이었다고 회고하였다.

부산상업은행의 설립과 경영에 관여한 자들은 일본에서 건너와 주로 상공업에 종사하여 부를 집적하였다. 1913년 창립시의 대표취체역은 萩野彌左衛門이었지만, 1919년 7월에 부산경남의 거대지주 迫間

房太郎이 두취에 취임하였다. 그리고 1921년에는 조선은행에서 泉末次가 두취로 취임하였지만, 부산의 3대 거부인 迫間房太郎(4,295주)과 大池忠助(3,100주), 香椎源太郎(3,020주)가 대주주로서 취체역을 역임하였다. 迫間房太郎의 주식주가 5천주 이상으로 증가한 것 말고는 나머지 두 사람의 주수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불입자본금 75만 원에 대한 3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朝鮮銀行會社要錄, 1921년판~1925년판,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27년판~1935년판).

迫間房太郎은 일본 和歌山縣 출신으로서 1880년 大阪 소재 五百井商店의 부산지점을 맡기위해 한국에 건너온 후 1905년 독립하여 무역 및 부동산 경영에 종사하면서 1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를 쌓았다. 釜山共同倉庫會社 사장, 釜山土地 사장과 각종 은행 및 회사의 중역을 지냈고 釜山水産株式會社, 釜山倉庫株式會社, 釜山穀物輸出會社, 米穀商組合 등을 설립했다(서광운, p.665, 한국역사정보시스템-박간방태랑-인물). 大池忠助는 대마도 출신으로서 1875년에 부산에 건너와서 해산물무역에 종사하였다. 1907년에 부산수산주식회사를 창설하여 거액을 벌고 이를 밑천으로 원산과 삼천포에도 수산회사를 설립하였다. 미곡의 대일수출에 손대었고 釜山電燈株式會社를 조직하여 1899년에 사장이 되었으며, 釜山軌道株式會社, 釜山機船株式會社를 창립하고 사장과 중역에 취임하였으며, 釜山米穀證券信託도 만들었다(서광운, p.665, 조선공로자명감, 한국역사정보시스템-대지충조-인물). 香椎源太郎은 일본 福岡縣 출신으로서 1900년대 초 어장과 수산업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하였는데, 부산수산주식회사의 취체역을 역임한 바 있고, 1910년대 후반부터는 朝鮮瓦斯電氣株式會社, 日本硬質陶器株式會社 등을 경영하였다. 그는 전기 관련 다른 회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1934년에 西鮮合同電氣 회장, 1937년 南鮮合同電氣 회장으로서는 전기업계 최고의 실력자가 되기도 했다(김동철, 2006, pp.59-86).

이렇게 부산지역의 은행설립 및 경영에 관여한 인

물들을 볼 때, 이들은 대체로 지주이면서 상공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자들이었다. 다만, 일제하에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은행과 관련되는 인사들의 성격이 지주에서 상공업자로 옮겨가는 현상을 보였다. 구포는 삼랑진을 거쳐 왜관과 상주까지 물길이 이어지고 경북 일대의 미두가 집중하는 물산의 집산지였다. 부산지역도 개항과 더불어 상업 중심지로 성장해 가고 있었고, 동래 역시 일본과 교역했던 동래상인이 거주했던 지역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은행 설립에 관여한 인물들이 대체로 지주였는데 비해 부산 지역의 은행설립자·경영자들은 다른 지역보다 상업적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인 역시 대지주였지만 이들은 주로 상업을 통해 부를 집적한 후 지주로 변신한 것이 한국인과 다른 점이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은행령 이후에 부산에 설립된 은행에도 한국계 은행에 일본인 자산가가 참여하고 있고, 일본인이 설립한 은행에도 부산경남의 자산가들이 주주로 참가하면서 임원을 맡았다. 예를 들면, 구포은행 설립 당시 迫間房太郎(400주), 大池忠助(400주), 上田勝藏(200주), 五島勝輔(200주)를 비롯하여 16명의 일본인이 주주로 참여하였고, 상담역에 迫間房太郎, 감사역 吳道甚吉, 취체역에 大池忠助가 취임하였다(조기준, p.147, 서광운, p.665). 부산상업은행의 감사역에는 이규직이 취임하였다. 동래은행에는 國司道太郎과 曾我春太郎이 일본인 중에서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그 외에도 大池忠助, 迫間房太郎 등도 약간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인 주주 가운데 1~13기 영업까지 상담역을 맡은 사람은 岩永米吉이 유일했다. 동래은행의 경영에 일본인은 상대적으로 덜 관여했던 것이다. 구포은행은 설립시에 총 6,541주 중 일본인 6명이 1,600주를 가졌는데(차철욱, p.14의 <표 4> 참조), 迫間房太郎은 迫間商店의 점원 출신으로서 취체역에 임명된 문상우를 통해 자기의사를 반영하였다고 한다(서광운, p.665). 그렇지만 경남은행은 기본적으로 한국인 경영자들에 의해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부산지역 은행의 설립 및 경영자들은 상호간에

주식을 매입해 주고 취체역 등 임원직을 수락했지만, 경영의 주도권 면에서는 한국계와 일본계 은행으로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었다.

### 3. 예대출과 자금운용의 특징

표 2는 부산지역 본점은행들의 불입자본금과 예대출을 정리한 것이다. 일제하의 은행들은 자금 수요가 있는 물화집산지나 교통요지에 설립되었는데, 본점을 합하여 한 두 개의 지점 혹은 출장소로서 영업을 전개하는 것이 일반적 양상이었다. 부산의 은행들도 설립 초기에 다른 지역의 은행과 마찬가지로 지점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부산상업은행은 1923년 경에는 지점 및 출장소가 5곳, 1929년에는 7곳에 이를 정도로 영업망이 넓었던 것이 특징적이다.

세 은행은 모두 시작 단계에서는 공칭자본금 50만원(1주당 50원, 1만주), 불입자본금이 12만 5천 원이었지만, 1920년부터 경남은행과 부산상업은행의 불입자본금이 75만 원으로 증가했던 데 비해 동래은행은 설립 다음 연도인 1919년부터 합병당할 때까지 줄곧 25만 원에 지나지 않았다.

세 은행 중 경남은행과 부산상업은행은 제1차 세계 대전의 호황기에 전쟁특수에 힘입어 배당률이 10%에 이를 정도로 영업상황이 좋았다. 그러나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반동공황이 내습하기 시작하면서 재계가 불황에 빠지자 영업을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두 은행은 불입자본금의 증가로 대응했다.

일제 말기를 제외하면 은행의 자금 동원과 운용은 증권시장의 미비로 인하여 여수신업무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불입자본금이 가장 작은 동래은행은 예대출에서도 역시 규모가 가장 작다. 설립 이후 경남은행과 동래은행은 예금 증가세가 완만하거나 정체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남은행과 부산상업은행은 1920년 이후 납입자본금이 같았지만 예대출 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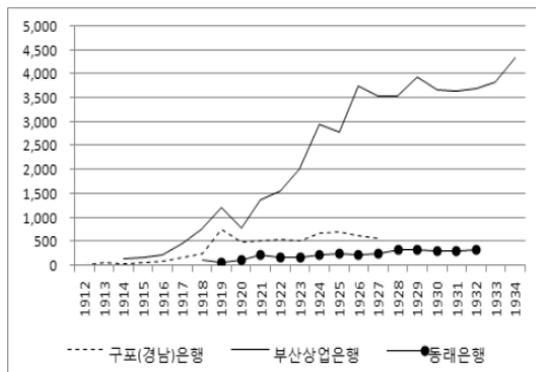
표 2. 부산지역 본점은행의 자본금과 예대출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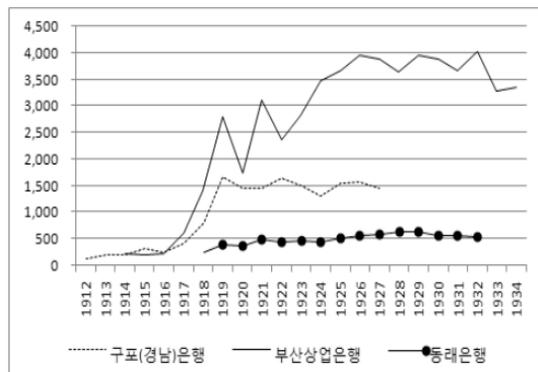
	구포(경남)은행				부산상업은행				동래은행			
	지점출장소	불입자본금	예금	대출	지점출장소	불입자본금	예금	대출	지점출장소	불입자본금	예금	대출
1912	-	125	9	128								
1913	-	125	69	190	1	125	없음	없음				
1914	1	125	47	189	2	125	131	225				
1915	1	125	68	310	2	125	151	212				
1916	1	125	85	255	2	125	212	230				
1917	1	250	162	419	3	200	459	623				
1918	3	375	253	804	3	200	737	1,404	-	125	101	262
1919	3	500	745	1,666	3	500	1,218	2,808	-	250	86	404
1920	3	750	470	1,453	4	750	787	1,740	1	250	113	373
1921	2	750	499	1,449	4	750	1,364	3,113	1	250	204	484
1922	3	750	543	1,653	4	750	1,564	2,377	1	250	153	445
1923	3	750	498	1,490	5	750	2,001	2,832	1	250	156	465
1924	3	750	673	1,317	5	750	2,968	3,474	1	250	212	449
1925	3	750	704	1,551	5	750	2,801	3,669	1	250	234	523
1926	3	750	610	1,573	5	750	3,759	3,953	1	250	214	571
1927	3	750	549	1,457	5	750	3,547	3,882	1	250	236	596
1928					5	750	3,555	3,639	1	250	310	650
1929					7	750	3,943	3,956	1	250	314	631
1930					7	750	3,677	3,864	1	250	305	571
1931					7	750	3,642	3,659	1	250	300	567
1932					7	750	3,698	4,018	1	250	335	549
1933					7	750	3,834	3,287				
1934					7	750	4,353	3,339				

주: 지점·출장소: {경남은행}초량(1913.3.1, 1915.1.24 본점으로 귀속, 구포 본점이 지점이 됨)/마산(1918.8.7, 1920.6.19폐지)/하동(1918.11.9)/부산진(출)(1922.12.1) {동래은행} 거창(1920.3.15)

출처: 朝鮮總督府, 朝鮮金融事項參考書, 1939년조, pp.35-49. 朝興銀行, 朝興銀行百年史, p.158, p.210.



(예금)



(대출)

그림 1. 부산 3은행의 예금과 대출(단위: 천원)

는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경남과 부산상업은행은 1920년에 다같이 예금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경남은 이후 거의 정체인데 반해 부산상업은행은 급속한 증가를 거듭하고 있다.

대출은 1919년까지 경남은행과 부산상업은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지만, 두 은행은 1920년에 감소를 경험하였다. 경남이 이후 정체이거나 미감 추세인 반면 부산상업은행은 증감을 반복하면서도 증가추세로서 전자와 격차를 벌리고 있다. 특히 부산상업은행의 대출 추이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일본계 은행으로서 1920년대에 내습하는 공황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경남 및 동래은행과 비교하여 부산상업은행의 예대출이 경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빠른 증가세를 보인 것은 은행을 이용하는 주요 고객층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즉 동래은행은 동래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경남은행 역시 부산으로 이전하였지만 주 고객은 여전히 자금이 영세한 한국인이었다. 반면, 부산의 3대 거부가 모두 대주주로 참여한 부산상업은행은 자본규모가 큰 일본계 기업이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본인을 상대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여수신 규모의 차이는 불가피한 현상이었던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한국계 은행과 일본계 은행의 구분은 여수신 업무의 격차에서 오히려 극명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표 3은 경남은행과 부산상업은행을 비롯한 국내 본점은행의 영업대상에 관한 자료인데, 설립주도 세력

이 어느 쪽이었는지에 따라 여수신의 주 고객이 갈라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은행들은 대체로 해방 이후에는 1960년대 전반기까지 만성적인 오버 론이 지속되었다. 그렇지만 일제시대의 보통은행들은 1927년 이후 해방될 때까지 예금초과였다. 1927년 이후에 예금이 초과된 것은 불황의 여파 때문이고, 식민지 전시경제 체제가 특히 1938년 이후에는 전비조달과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저축증대운동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일제하 보통은행 중에서 본점은행들의 예금과 대출을 비교하면, 본점은행의 예대출 총액이 집계된 1914년부터 1938년까지 항상 대출초과였다(조선총독부, 1939년조, pp.37-49에서 계산). 이것은 1927년 이후 보통은행 전체의 예금초과는 순전히 지점은행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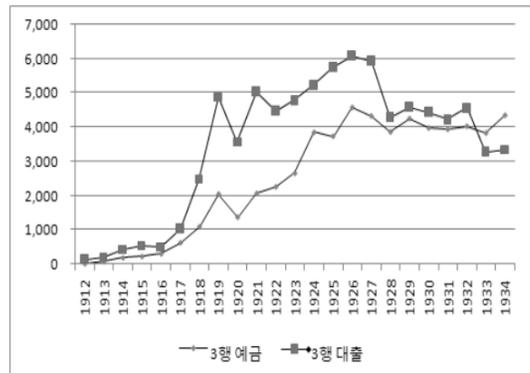


그림 2. 부산 3행의 예금 및 대출 합계액 (단위: 천원)

표 3. 본점은행의 영업대상의 내용 (1925년 말 현재)

(단위: 천원)

	예금				대출			
	한국인	일본인	외국인	계	한국인	일본인	외국인	계
경남은행(한국)	568	118	16	704	1,364	139	47	1,551
부산상업(일본)	203	2,136	5	2,345	219	3,447	1	3,668
선남은행(일본)	37	815		853	66	1,048		1,115
한일은행(한국)	5,153	370	239	5,763	6,374	218	280	6,873
호남은행(한국)	1,167	382	43	1,594	2,103	376	84	2,564
호서은행(한국)	505	352	17	877	1,635	205	5	1,846

자료: 朝鮮總督府, 1927, 秘 朝鮮金融經濟調査資料(基1), pp.87-109.(堀和生, 1985, p.44에서 재인용)

표 4. 부산 금융계 인사들의 관련 사업체

성명	사업체 명
송태관	부산신탄(주)/송태정미소/조선주조(주)/三山자동차주식회사<취체역: 1920>
윤현태	경남인쇄(주)(1916)<주주>/일금상회<경영>/경상합동은행
진석준	경남인쇄(주)<취체역>/일금상회<경영>
이규직	경남인쇄(주)<상담역>/석탄상
안희제	백산무역(주)/금전대부업(1928)
윤병준	윤병준상점(합자)<점주>/부산곡물신탁(주)(1920)<취체역>
김홍조	경부선목재공급/경남일보초대사장/부산피혁공장(1914)/조선요업(주)(1914)/부산해조(주)/삼산자동차회사/조선해조주식회사(1919)<설립>
박인표	고려상회(1917)<경영주>
김형찬	태복상회(1910년도 후반)<설립, 지배인>
김용조	경남인쇄(주)<감사>
최상갑	조선해조(주)(1920)<취체역>
박치영	우전정미소(1932)<대표>
迫間房太郎	부산토지주식회사<대표>/부산수산주식회사<취체역>/부산간교주식회사<취체역사장>/부산미곡증권신탁주식회사<취체역>/부산와사전기주식회사<취체역>/무역 및 토지가옥 경영/부산공동창고주식회사<사장>/남선합동전기주식회사<취체역>/광산업/남선신탁 등 다수기업의 중역 역임
大池忠助	부산전등주식회사 설립(1899)<사장>/대지여관 경영/일본우선회사 기선을 취급/부산미곡증권신탁주식회사<대표취체역>/부산수산주식회사창설<사장>/곡물수출상조합, 부산곡물상조합, 부산해산물 조합 등을 조직<조합장>/부산개도주식회사 창립<사장>/부산기선주식회사 창립<사장>/부산공동창고<취체역>/동양축산공업<취체역>/경성주식 현물시장<감사역>/부산간교주식회사<취체역>/토지매점, 가옥 등
香椎源太郎	부산수산주식회사<취체역:1907, 사장:1930>/경성일환수산주식회사<취체역>/조선와사전기주식회사<사장 겸사무:1915>/조선수산수출주식회사<사장:1918>/일본경철도기주식회사<사장: 1925>/경성수산주식회사<사장: 1927>/조선송전주식회사<사장, 대주주:1928>/조선전기공업주식회사<대주주: 1928>/서선합동전기주식회사<회장, 대주주:1934>/조선전력주식회사<이사: 1935>/남선합동전기주식회사<회장, 1937>
정재학	조선미곡주식회사<소유>
최연국	입자신탁주식회사<경영>/토지회사<경영>
문상우	백산무역주식회사<취체역>

출처: 김동철, 2001, p.62, 김호변, 1991, p.96, p.237, 홍순권 편, 2005, pp.162-163, pp.260-261, pp.711-713.  
 오미일, 1995, p.92, 차철욱, 2001, pp.38-39, 고승제, 1970, pp.197-244.  
 조기준, 1973, pp.140-148, 서광운, 1972, pp.664-667, p.710-711.

의 예금초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그림 2는 부산 본점은행의 예대출 총액을 비교한 것이다. 단, 설립 시점이 다르고 합병되어 사라진 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 혹은 두 행의 합계액만 나와 있는 연도도 있다.

부산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호황기인 1918년부터 자금수요가 급증하면서 대출초과액이 급상승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는 1927년부터 꺾이기 시작하는데 지점은행을 포함한 보통은행 전체의 예금초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1938년까지 본점은행

전체적으로 여전히 대출 초과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부산(부산상업은행분임)은 이미 1933년과 1934년에 예금초과에 접어들었다.

그러면 이러한 자금의 조달과 운용은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이었을까? 일제시대에 나타나는 금융기관들 간의 역할분담, 즉 분업구조를 보면, 식민지 중앙은행인 조선은행과 그 산하기관인 본점은행들은 상업 금융을 담당했고 조선식산은행과 금융조합은 산업자금을 공급했다. 조선은행사연구회의 연구결과(조선은행사, 1987)나 대장성 은행국의 소화재정자료(제1호 99책) 등에 따르면 조선은행은 鈴木商店과 같은 일본의 2등급 재벌을 비롯하여 규모가 큰 기업과 거래하였고, 한국내 물화집산지 각지에 설립된 본점은행은 지역적 금융을 담당했다. 이러한 지역금융을 이용한 계층에 대해서 살펴보자. 앞의 표 4는 세 은행에 관계된 금융계 인사들과 밀접한 사업체의 윤곽을 정리한 것이다.

일제시기에도 증권회사나 증권거래소가 있기는 했지만 증권시장은 미발달했다. 그러므로 각 지역의 유력자들이 대주주 혹은 경영자가 된 것은 투자를 통해서 주식거래상의 단기차익을 실현하거나 배당이익을 기대하기 보다는 은행 자금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경영하는 대금업 등의 금융업이나 각종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금융계 인사들은 은행이라는 한 업종에만 종사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관계를 맺고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면서 은행 자금을 이용하여 자본을 축적하고자 했다. 백산상회를 경영한 안희제의 경우, 경남은행에서 손을 뗀 후에도 대금업을 운영했다고 하는 언급은 금융업이 자본축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음을 시사한다. 은행 설립에 대주주 혹은 경영진으로 참여하여 은행 자금을 자기가 경영하는 회사의 자금으로 이용하는 것은 일본인 기업가도 예외가 아니었다. 뒤에서 보듯이, 부산의 3대 부호였던 迫間房太郎, 大池忠助, 香椎源太郎이 설립한 부산수산주식회사에 거액을 대출해 준 것이 잘못되어 부산상업은행이 조선상업은행에 매수합병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기사는 이를 보여주

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4. 경영성과 및 합병과정 검토

### 1) 경영성과 분석

1910년대 후반의 호황기에 번성한 은행들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해인 1919년의 반동공황과 1920년대 금융공황의 여파로 합병되어 행수가 점점 줄어들었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저작의 대부분은 1920, 1921년에 21개였던 은행이 합병되어 줄어드는 배경을 경제불황과 이를 예상치 못한 무리한 영업확장에 따른 불량대출과 고정대의 급증, 수익률의 급감과 재무구조의 악화 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이 부산지역의 경우에는 타당한 지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해보자.

경남은행은 1912년 창립시 제1회 불입금 12만 5천 원으로 영업을 시작하여 1913년 3월 1일에는 초량지점을 신설하였다. 본점을 부산으로 옮긴 후 경남은행은 호황을 배경으로 1917년부터 1919년까지 3회에 걸쳐 매년 불입자본금을 12만 5천 원씩 증자하고 마산과 하동에 지점도 설치하여 영업망과 경영을 순조로이 신장시키고 있었다. 또한 1918년에는 설립된 지 6개월 되는 주일은행도 12월 26일자로 흡수·합병하였다.

그러나 경남은행은 1920년 3월부터 불어 닥친 공황의 여파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다. 예금이 급감하고 대출도 감소하는 가운데 부실대출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경남은행은 “대영단으로” 1920년 5월 5일 신구주 2만주의 제3회 주금 25만 원을 넣어 불입자본금 75만 원으로서 자금경색을 완화하고자 하였다(조흥은행, 1957, p.302; 1997, pp.156-157). 1921년 6월 19일에는 실적이 부진한 마산지점을 폐쇄하였다. 이후에 1920년의 불황이 다소 진정되고 영업실적도 약간 나아져 부산진출장소를 설치하

고 두취를 비롯한 중역진도 여러 차례에 걸쳐 교체했지만<sup>13)</sup> 결국 영업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표 2와 그림 1을 보면, 은행 영업의 핵심이 되는 예대출 실적이 좋지 않다. 예금은 1920년 이후 정체상태에 있고 1918년에서 1919년에 2배 이상으로 급증했던 대출은 1919년을 정점으로 정체 혹은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공칭자본금 50만 원, 납입자본금 12만 5천 원으로 출범했던 부산상업은행은 설립 초에는 萩野彌左衛門이 발기인이자 대표취체역으로서 활약했지만, 1910년대 말에 혹은 1920년대 초에는 부산 3대 부호의 수중에 완전히 들어갔다. 즉 1919년 7월에는 迫間房太郎이 두취에 취임하였고, 1920년 상반기에는 공칭자본금을 150만 원, 불입자본금 75만 원으로 자금력이 대폭 강화되었다. 은행에 대한 지배력도 압도적이어서 조선은행회사요록 1921년판에 따르면 迫間房太郎, 大池忠助, 香椎源太郎은 이사이면서 각각 4,295주, 3,100주, 3,020주의 주식을 소유하였다(공칭자본금 150만 원, 불입자본금 75만 원, 1주당 50원, 주주수 417명). 이 3인은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1927년판에는 주주수 359명 중에서 각각 5449, 2780, 3020주를 소유했던 것으로 나온다. 또한 많은 본점은행들이 한두 군데의 지점 및 출장소 밖에 없던 것에 비하여 부산상업은행은 진해, 통영, 울산, 방어진, 부산서부, 부산목도, 마산의 7 군데로서 부산은 물론 동부 경남과 서부 경남에 영업망을 펼치고 있었다. 그러나 1930년대에 거액을 대출해 준 부산수산회사의 부도로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져 조선은행에 매수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한다(조흥은행, 1997, pp.220)

1918년에 출범한 동래은행은 다음 해에 제2회 주금 12만 5천원을 더하여 도합 50만 원의 불입자본금으로서 가장 규모가 적었지만 규모에 비해 실적이 나쁘지 않았고, 1920년 3월 15일에는 거창지점을 설치하여 영업망을 확장했다. 여수신업무를 표 2와 그림 1에서 다시 확인하면, 앞의 두 은행과 달리 큰 변동 없이 예금은 세계대공황이 터지는 1929년의 정점까지 미증하고 있고, 대출도 역시 세계대공황의 여파가

밀려오기 전까지 약간의 증가 추세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조흥은행사들은 동래은행의 영업 성적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고 하고, 이것이 불황기에 동래은행이 호남은행에 합병된 이유라고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조흥은행백년사(p.209)는 1920년 윤병준의 뒤를 이은 박인표의 사망 등 네 차례에 걸친 두취의 교체를 언급한 후, “1920년대 만성적인 불황과 계속되는 공황하에서” 업적이 부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일제하의 본점은행은 1943년 10월 1일을 마지막으로 모두 조흥은행과 조선상업은행의 단 2행에 합병되어 버리고 마는데, 합병 이유로서 한결같이 불황과 심각한 실적 부진을 언급하고 있다.<sup>14)</sup> 그러나 동래은행의 실적 부진을 언급한 조흥은행백년사에는 곧 이어진 동래은행의 합병과정에 대해서 재무구조의 악화나 구체적인 실적부진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 조흥은행백년사는 동래은행 합병의 직접적 이유로서 1928년에 12월에 공포된「개정은행령」을 지적하고 있다. 개정은행령은 제3조에 은행 자본금의 최저한도를 20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지 못한 은행은 합병대상이었다고 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불입자본금 25만 원의 동래은행은 당연히 합병 대상이었던 것이다.

표 5와 그림 3은 부산 세 은행의 경영 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경남은행은 1918년부터 순이익이 급증하여 1920년 말과 1921년 상반기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순이익률도 개점 이후 1921년 6월의 기간에 연평균 약 6.4%이며, 배당률은 세 은행 중에서 가장 높은 10%였다. 그러나 1921년부터 영업성적이 급속하게 나빠지기 시작하여 순이익률이 1%대로 곤두박질하여 1921년 12월 이후에는 전국의 본점은행 평균이익률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26년 상반기 이후에는 무배당이 계속되고 있다.

부산상업은행도 1917년 하반기부터 경영 성적이 크게 좋아져 1920년 상반기까지 부산상업은행 역사상 가장 양호한 순이익률과 배당률을 기록했다. 이후 순이익률이 감소하는 추세가 있는데, 그래도 1920년대의 순이익률은 1910년 수준에 비하여 그다지 낮은

표 5. 부산 3행의 경영수지

(단위: 천원, %)

	경남은행				부산상업은행			동래은행			전국	
	총이익금	순이익금	순이익률	배당률	순이익금	순이익률	배당률	순이익금	순이익률	배당률	순이익금	순이익률
1912.12	11	6	4.8	10.0							112	4.8
1913.6	16	8	6.4	10.0	-	-	-				148	5.7
1913.12	19	8	6.4	10.0	3	2.4	4.0				117	5.6
1914.6		9	7.2	10.0	4	3.2	4.0				178	5.4
1914.12	24	9	7.2	10.0	4	3.2	4.0				175	5.3
1915.6	25	9	7.2	10.0	4	3.2	5.1				162	4.9
1915.12		9	7.2	10.0	5	4.0	6.1				142	4.3
1916.6	31	9	7.2	10.0	5	4.0	6.0				155	4.7
1916.12	29	9	7.2	10.0	6	4.8	7.0				164	4.9
1917.6	33	9	7.2	10.0	8	4.0	8.0				181	4.9
1917.12	41	9	3.6	10.0	12	6.0	10.0				211	5.2
1918.6	57	18	7.2	10.0	15	7.5	8.0				256	5.9
1918.12	80	21	5.6	10.0	19	9.5	10.0	3	2.4	5.0	337	5.8
1919.6	100	29	5.8	10.0	25	7.1	10.0	9	7.2	8.0	418	6.2
1919.12	138	45	6.0	10.0	37	7.4	10.0	11	4.4	10.0	573	6.4
1920.6	163	43	5.7	10.0	56	7.5	8.0	15	6.0	8.0	778	6.2
1920.12	91	47	6.3	10.0	35	4.7	7.0	17	6.8	8.0	828	5.5
1921.6	136	46	6.1	8.0	12	1.6	-	17	6.8	8.0	878	5.8
1921.12	116	19	2.5	4.0	35	4.7	7.0	18	7.2	10.0	958	6.3
1922.6	115	30	4.0	5.0	35	4.7	7.0	13	5.2	8.0	1,007	6.1
1922.12	114	28	3.7	5.0	37	4.9	7.0	14	5.6	8.0	938	5.7
1923.6	126	32	4.3	5.0	37	4.9	7.0	7	2.8	6.0	904	5.6
1923.12	108	25	3.3	4.0	40	5.3	7.0	10	4.0	6.0	849	5.1
1924.6	76	12	1.6	3.0	41	5.5	7.0	9	3.6	6.0	904	5.4
1924.12	75	3	0.4	0.0	43	5.7	7.0	14	5.6	6.0	1,017	6.1
1925.6	81	19	2.5	4.0	46	6.1	7.0	11	4.4	6.0	747	4.5
1925.12	91	20	2.7	4.0	45	6.0	7.0	12	4.8	7.0	734	4.5
1926.6	93	22	2.9	0.0	42	5.6	8.0	16	6.4	7.0	721	4.4
1926.12	92	16	2.1	0.0	31	4.1	7.0	14	5.6	7.0	688	4.2
1927.6	88	13	1.7	0.0	40	5.3	6.0	14	5.6	6.0	722	4.3
1927.12	84	13	1.7	0.0	40	5.3	6.0	19	7.6	6.0	681	4.0
1928.6		12	1.6		40	5.3	6.0	17	6.8	7.0	603	4.0
1928.12					38	5.1	6.0	14	5.6	7.0	608	4.0
1929.6					39	5.2	6.0	18	7.2	7.0	647	4.3
1929.12					39	5.2	6.0	15	6.0	7.0	625	4.1
1930.6					30	4.0	6.0	16	6.4	7.0	618	4.1
1930.12					37	4.9	6.0	13	5.2	6.0	550	3.7
1931.6					37	4.9	5.5	13	5.2	5.5	472	3.2
1931.12					32	4.3	5.0	12	4.8	5.5	490	3.3
1932.6					31	4.1	5.5	10	4.0	5.0	464	3.2
1932.12					33	4.4	5.5	8	3.2	5.0	497	3.4
1933.6					30	4.0	5.0	1	-	-	379	2.6
1933.12					29	3.9	5.0				473	3.3
1934.6					37	4.9	5.0				490	3.4
1934.12					35	4.7	5.0				490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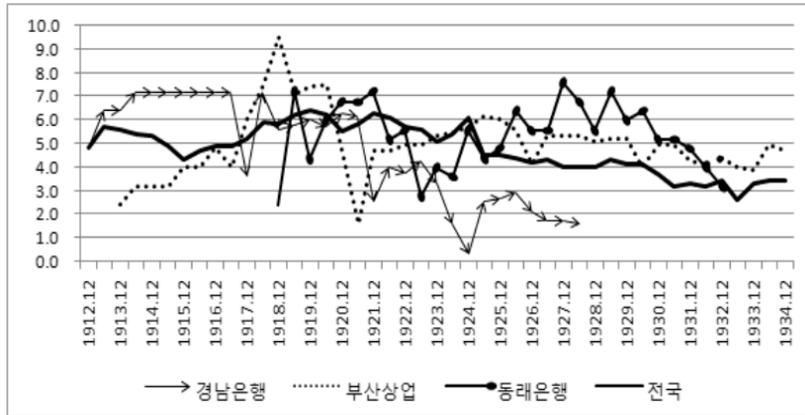


그림 3. 부산 3행의 순이익률 비교

편이 아니었다. 동행의 배당률은 1925년 말까지 7.0%, 1930년 말까지 6.0%, 그 이후 5% 대를 유지하였다.

동래은행은 1921년 말에 가장 높은 순이익률을 기록한 후 약간씩 하락하는 추세지만 위의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1920년대 후반 1930년대 초에 부산상업은행의 그것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배당률도 높다. 전국 본점은행의 평균 순이익률과 비교하면 경남은행은 1921년 이후 전국보다 항상 크게 낮았지만, 부산상업과 동래은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즉 경남은행은 1920년 이후 같은 부산상업은행과 불입 자본금이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성적이 가장 나빴고, 오히려 가장 규모가 작은 동래은행이 경영 수지면에서 가장 좋았던 것이다. 경남은행의 경영성적이 나쁜 것은 개점 이후 10%의 가장 높은 배당률을 지속한 것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특히 1910년대 호황기의 방만한 경영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다. 반면 동래은행의 경영성과가 나쁘지 않았던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해에 설립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불황이 닥쳤기 때문에 영업확장의 기회가 없었던 것, 방어적인 경영으로 불량대출, 고정대출의 증가를 피할 수 있었던 점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 2) 합병과정 검토

세 은행은 예대출의 증감이 불안하게 반복되거나 경영 수지가 악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3행 모두 순손실이 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경남은행의 영업성적이 가장 나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다른 은행과의 합병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은행 합병은 조선총독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것이기도 하지만 불경기 속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던 은행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었다.

경남은행은 대구은행과 합병논의를 시작하였다. 경남은행은 일본계 부산상업은행과 경쟁관계에 있었고 대구은행은 한국계 경일은행 및 일본계 선남은행·경상공립은행과 경쟁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상호간의 필요성에 따른 합병문제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어 갔다. 경남은행과 대구은행은 영업악화로 인하여 조선은행에 대한 차입금 의존이 심화되었는데, 총독부는 대은행주의를 내세워 일본인 중역을 영입시켜 영향력을 확보하려 하였다. 더욱이 경남은행은 독립자금의 공급처란 혐의를 받고 있었고 대구은행도 일본계 은행과 격심한 경쟁관계에 있었다(조흥은행, 1997, pp.165-168). 드디어 1928년 7월 31일 대구은행 회의실에서 의장 정해봉 등 6인 설립위원의 발기

로 (주) 경삼합동은행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신문기자의 출입이 금지되고 경찰이 지켜보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창립총회에서는 총독부가 내정한 인선안이 거부되고 총독부가 가장 기피하던 정재학이 압도적 지지로 대표취체역 겸 취체역 회장에 피선되었다(조흥은행, 1997, p.169).

경삼합동은행은 두 은행의 자본금을 각각 4분의 1씩 감자하여 공칭자본금 225만 원, 불입자본금 133만 1,250원으로 새출발하였다. 새 은행의 본점은 대구은행의 본점이 차지하고 경남은행 본점은 부산지점이 되었으며, 구포, 하동, 안동, 왜관, 경주, 포항의 7개 지점과 부산진 출장소의 9개 영업소로서 1928년 8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

두 번째로 타 지역 은행에 합병당한 것은 동래은행이었다. 동래은행은 세 은행 중에서 실적이 결코 나쁘지 않았지만 합병의 구실이 된 것은 규모가 작다는 것이었다. 일본에서는 1927년에 또 한 차례 금융공황이 발생하여 혼란이 심화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일본은 1928년에 '금융제도조사회'를 구성하여 각국의 금융제도를 조사연구하고 금융제도의 재조정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1928년 말에 「금융조합령」과 「저축조합령」이 공포되고 1929년에는 「은행령」이 개정되어 합병정책이 본격화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29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개정된 은행령의 핵심적 내용은 “제3조 은행업은 자본금 200만 원 이상의 주식회사가 아니면 영업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이석륜, p.273). 1933년 현재 동래은행의 공칭자본금은 50만 원, 불입자본금 25만 원이었다. 때문에 동래은행은 합병 대상을 물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래은행은 지리상의 근접성 때문에 밀양은행과의 합병을 거론하기도 했으나 밀양은행도 자본금이 5만 원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론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취체역 회의에서 합병대상으로 湖南銀行을 선택하였다. 1933년 4월 4일 동래은행의 추종화, 김병규와 호남은행의 현준호, 김신석은 두 은행의 합병계약을 맺었다(인수조건은 조흥은행, 1997, p.211). 1933년 5월 30일에 임시 주주총회가 열려 합병을 승인했

으며, 7월 5일에는 당국에서 합병인가를 받았다, 동래은행은 1933년 7월 20일 해산하였다.

그런데 조선총독부는 자본금이 2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은행령 제3조를 법적 근거로 본점은행의 합병을 밀어부쳤지만, 식민지 경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큰 일본에서는 새로운 은행법에서 자본금 100만 원 이상의 주식회사만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다만, 직령이 예외적으로 지정하는 지역인 東京과 大阪에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은행은 자본금 200만 원 이하로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다(이석륜, pp.274-275). 이러한 사실은 독립된 정부를 갖지 못한 경제주체들이 겪었던 금융정책의 식민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독립된 정부를 갖지 못한 기업인들에게 자기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금융 면에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다.<sup>15)</sup>

부산상업은행은 1935년에 조선상업은행에 합병매수되었다. 1930년대에도 영업 성과를 그런대로 지속하던 부산상업은행이 합병매수된 직접적인 계기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부산수산회사에 대출한 자력의 자금이 부도처리되었기 때문이었다. 기존의 연구나 한국상업은행칠십년사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은 이 사실은 한국상업은행백년사에 실려 있다. 이에 따르면, 1935년 5월 조선은행 총재가 부산상업은행의 합병매수에 대해서 “부산수산회사에 대출해 준 것이 화근이 되어 경영부진에 빠졌다.”고 한다.<sup>16)</sup>

1935년 5월 24일 두 은행 사이에 맺어진 계약에 대해서 한국상업은행칠십년사는 매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한국상업은행백년사는 합병매수라고 부르고 있다. 갑작스런 악성 부실 때문에 대등한 합병이 아니라 “부산상업은행의 중역은 조선상업은행에 중용치 아니”(한국상업은행, 1998, p.220) 하는 등 다른 은행의 합병 조건에서 보기 힘든 열악한 조건의 매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조선상업은행은 1935년 6월 1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부산상업은행을 75만 원에 매수하기로 승인을 구했고, 6월 22일에 부산상업

은행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조선상업은행은 부산에 종래 1개 점포만 있었지만 부산상업은행을 매수함으로써 부산을 비롯한 경남 일대에 영업망을 크게 확충하게 되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런데 조선상업은행은 이미 1919년 말에는 일본인의 주식 비율이 절반을 넘었고, 이를 바탕으로 1920년대 초부터는 일본인 사장과 중역이 경영을 장악한 상태였다(최상오, 184-188). 이와 같이 은행합병은 한국인계에 대해서만 추진된 것이 아닌데, 한국인계 은행은 조흥은행에, 일본인계 은행은 조선상업은행에 합병되었다(김호범, 1991, pp.355-357). 민족계 은행을 최종적으로 합병한 조흥은행 역시 전신인 한성은행의 창립에 관여했던 한상룡이 배제되었고 조선총독부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조선총독부는 은행합병을 통해서 식민지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여 1935년 부산상업은행의 매각을 기점으로 부산지역에서는 본점은행시대가 막을 내렸다. 부산에서 본점을 둔 은행이 다시 생긴 것은 1967년이였다.

## 5. 결론

본고는 부산에서 본점은행이 설립되기 시작하는 1910년대 초부터 부산에 존재했던 경남(구포)은행, 동래은행, 부산상업은행이 매수·합병된 1935년경까지 은행의 설립과 경영상의 특징, 영업성과, 합병과정 등을 살펴보고 지역은행사를 재구성하고자 했다. 또한 그 동안 소홀히 다루어졌던 일본계 은행인 부산상업은행의 전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지역은행사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는 한국금융사의 구체적 실상을 파악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일반은행이 창립된 것은 19세기 말로서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등

이 초기 설립기의 은행들이었다. 그러나 국내에 본점을 둔 일반은행은 1912년 일제가 제정·공포한 은행령 이후에 대거 창립되었다. 은행령 이후 전국의 교통요지와 물화집산지에는 지주 및 상인에 의한 은행설립이 추진되어 1920년과 1921년에는 무려 21행에 이르렀는데, 이는 현재와 비교해서도 오히려 적지 않은 숫자였다.

부산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은행은 1912년에 영업을 개시한 구포은행이었는데, 구포은행은 은행령 이후에 설립된 최초의 은행이었다. 1913년에는 일본인들이 주동이 된 부산상업은행이, 1918년에는 동래 및 기장지역의 유지들이 중심이 된 동래은행이 설립되었다. 이 세 은행의 설립에는 일본인과 한국인들이 교차하여 주식을 매입하거나 경영진에 참여하고 있지만, 경영의 주도권은 민족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한편, 한국인 은행가들은 계와 대부회사와 같은 과도적 형태의 금융회사 혹은 유사 은행 등에 관한 영업 경험을 쌓은 후에 은행 설립에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

부산에 설립된 세 은행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영업망을 확장해 나간 것은 일본계의 부산상업은행이었는데, 예금 및 대출 계층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계 은행은 한국인이, 일본계 은행은 일본인이 주로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금융계 인사들의 관련 사업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은행의 대주주나 경영자가 된 것은 은행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주식거래 상의 단기차익을 실현하거나 배당이익을 기대했다기 보다는 자신들의 기업체에 은행 자금을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울, 부산은 물론 전국 각 지역 요지에 21군데에 이르던 은행들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경제에 여러 차례 불어 닥친 공황의 여파로 인하여 폐쇄되거나 점차 합병과 매수의 길을 걸었다. 은행수의 감소는 공황의 여파에 따른 영업 실적 부진이 기본적인 원인이었지만, 모든 은행이 일방적으로 합병 혹은 매수의 대상이 되어야 할 정도는 아니었다. 조선총독부의 산업 및 금융정책의 방향도 본점은행의 영업을 압박하

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조선총독부는 사실상의 특수은행이나 다를 바 없는 정책금융기관인 금융조합이 도시조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때문에 본점은 행 측에서는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했다.

1920년대 초부터 영업상의 난관에 처한 경남은행은 1928년에 대구은행과 합병하여 대구상공은행으로 출범하면서 본점이 지점으로 격하되었다. 반면, 동래은행은 영업실적이 그다지 어려웠던 것도 아니고 대출금이 부도처리되어 갑작스럽게 영업을 위협에 빠진 것도 아니었다. 1928년에 개정된 은행령의 자본금 200만 원을 채우지 못한 것이 합병의 구실로 작용했던 것이다. 부산의 세 은행 중에서 영업실적이 가장 좋던 부산상업은행은 부산수산주식회사에 대출한 자금의 부도로 인해 조선상업은행에 합병매수되었다.

그런데 부산의 은행들이 불황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영업상 손실을 입었던 것은 아니었다. 즉 부산지역의 본점은 행들은 나름대로 자금을 동원하고 운용하면서 지역적 금융을 담당하고 순이익을 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 점에서 조선총독부의 강력한 합병지향적 정책이 부산에 근거를 둔 본점은 행의 소멸을 가져온 배경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당시의 금융인들(임원진과 대주주)의 대부분은 단순히 금융업에만 관계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금을 투하한 상공업에 종사하는 기업가이기도 했다. 즉 그들은 은행 경영을 통해서 자금을 스스로 공급받고 성장해 가던 기업가였던 것이다. 특히 동래은행과 같은 경우는 조선총독부의 일방적 금융정책에 의해 희생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제하에서 지역의 금융계가 경기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를 충실히 대변해 줄 기구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은행합병을 강제적으로 추진했던 조선총독부의 의도에 관해서이다. 조선총독부는 1928년 개정된 은행령을 법적 근거로 1930년대에는 은행간 합병매수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 점은 일제하에서 총독부가 생산업체등 일반기업에 대

해서 합병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던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개정된 은행령 이후 1930년부터 11건의 합병매수가 성사되어 일제패전 말기에는 조흥은행과 조선상업은행이란 본점은 행의 독점체제가 확립되었다. 일제 말기에 강제적으로 추진된 극단적인 은행통합은 식민지 권력에게는 식민지경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었다. 총독부는 경제와 기업경영에서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금융기구의 장악을 통해서 식민지경제를 지배·통제하려고 했던 것이다.

사사

본고를 위하여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심사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주

- 1) 이들 은행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기준, 1973, pp.109-113을 참조.
- 2) 한성은행은 2006년 4월에 신한은행과 통합한 조흥은행의 전신이고, 대한천일은행은 1999년 1월 한일은행과 합병하여 한빛은행으로 되기 직전까지 존재했던 한국상업은행의 전신이다. 한빛은행은 2001년 우리금융지주에 편입되었는데, 이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초기 창업기에 설립된 은행들은 아쉽게도 명칭까지 완전히 바뀌어 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어버렸다. 일제하에 설립되었던 한일은행은 1931년에 호서은행을 흡수하여 동일은행이 되었고 1943년에는 한성은행과 함께 조흥은행으로 신설되었으므로 1932년 설립된 (주)조선신탁을 모체로 해방 후 복합한 합병과정을 거쳐서 1999년까지 존립한 한일은행과는 다르다. 후자의 한일은행은 1998년 금융위기 때 한국상업은행과 대등한 합병을 거쳐 1999년 한빛은행이 되었다가 현재는 우리은행이란 상호를 달고 있다.
- 3) 1890년대부터 근대적 화폐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는데, 1891년에는 최초로 은본위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신식화폐조례가 공포되었고, 1894년에는 신식

화폐발행장정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정화준비가 부족하고 근대적 금융기관의 설립이 동반되지 않았으며 수구파의 반발, 외국의 압력 등으로 좌절되었다. 1901년에는 금본위제를 근간으로 하는 화폐조례, 1902년 중앙은행조례, 태환은행권조례가 발표되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 4) 일본에서 진출한 사립은행인 제일은행은 1902년 부산지점에서부터 제일은행권을 발행하기 시작했고(류자후, p.468), 1905년 1월에는 국고금취급과 화폐정리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맡게되었는데(대장성, pp.89-90, p.106), 1905년 3월에는 칙령 제73호에 의하여 중앙은행의 역할이 부여되었다(澁澤榮一, p.341-345).
- 5) 1906년 1월부터 서울에서 한성어음조합이 업무를 개시하고 평양(1906년 3월), 대구(1906년 11월), 진주(1906년 11월), 광주(1907년 5월), 전주(1907년 1월) 등지에 어음조합이 조직되었지만 부산에는 없었다. 부산에 어음조합이 없었던 것은 大倉喜八郎이 이미 1876년에 은행을 창립하고 1877년에는 오늘날의 동광동 자리에 어음거래소를 설치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박원표, p.20).
- 6) 은행조례는 총 15조로서 은행의 업무, 설립, 영업시간, 휴업, 정관변경, 대리점 설치 및 폐지와 위치변경, 채권발행, 영업보고서 작성 등 거의 모든 사항에 대해 탁치부대신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大藏省, 1939, pp.128-129, 山口精, pp.128-130).
- 7) 전문 20조의 이 규칙의 내용에 대해서는 山口精, pp.118-124 참조.
- 8) 1921년 상반기에 조선은행과 조선식산은행의 특수은행을 합하면 23행, 지점 및 출장소 107군데였다. 그러나 조선은행과 조선식산은행의 지점 및 출장소 각각 10개, 52개 총 62군데를 제외하면, 보통은행은 지점 출장소는 45군데에 지나지 않았다(조선총독부, 1939년조, pp.30-32, p.34). 이들 특수은행들이 일반은행의 업무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일제 치하에서는 금융기관의 정상적 발전이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 9) 예를 들면, 3.1운동 이후 경남은행의 운상은과 문상우 등 임원들이 상해임시정부에 거액의 독립운동자금을 조달한 예가 이에 해당한다. 부산경남의 자산가들은 경남은행의 협조를 얻어서 약속어음으로 대출하여 상해임정에 송금하였는데 이를 눈치 챈 일경들의 조사가 심해지자 운상은은 은행을 사직하고 일본 유학을 결심했다고 한다(윤상

은, 1979, 조흥은행, 1997, pp.156-157).

- 10) 이상의 예들은 고승제, pp.197-202, pp.210-213, pp.241-244, p.268, 서광운, p.666 등을 재해석한 것임.
- 11) 차철욱, “구포[경남]은행의 설립과 경영,” 『지역과 역사』 제9호, 2001.12, 부산경남역사연구소, 2001.12, pp.5-43, 김동철, “동래은행의 설립과 경영,” 『지역과 역사』 제9호, 2001.12, pp.45-80, 김동철·차철욱, “근대 부산 지역 금융관련 자료와 그 성격,” 『항도부산』 제18호, 부산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2002.7, pp.3-62.
- 12) 그 외의 주주의 지역별 분포, 시기별 경영진의 변화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차철욱(pp.8-12)에 잘 정리되어 있다.
- 13)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흥은행, 1997, 157-157, 차철욱, 서광운 등
- 14) 동래은행은 호남은행에, 호남은행은 다시 조흥은행에 합병되었다. 한국상업은행칠십년사와 한국상업은행백년사도 마찬가지로 합병의 원인을 대부분 불황에 따른 영업부진에 돌리고 있다. 두 은행은 각각의 社史에서 자기 은행에 합병된 은행 계열의 역사를 대체로 영업부진의 역사로 다루고 있다.
- 15) “조선총독부와 조선은행은 민족자본은행들에 대한 통제와 간섭을 간편한 방법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민족은행끼리의 합병을 끈덕지게 강요하여 왔다”(고승제, p.217). 물론 은행 경영 부실이 합병의 구실을 제공하였다.
- 16) 부산수산주식회사는 월내 1889년 부산수산회사란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나, 1907년 5월에 자본금 50만 원으로 조직이 변경되어 설립되었다. 1915년 10월에 경남수산주식회사와 합병하고 자본금을 70만 원으로 증자하였는데, 1921년 11월에는 자본금을 반으로 줄이고 전액 불입제로 하였으며, 1922년 5월에는 자본금 200만 원으로 증자하였다. 주요 사업 내용은 수산물의 매매 및 위탁판매, 수산물 운송, 제빙 판매 및 냉장냉동 및 위탁에 의한 물품보관, 어업자금의 대부 및 부동산의 대부, 유가증권 소유 등이었다(홍순권, 2005, 99.156-160).

### 참고문헌

고승제, 1970, 한국금융사연구, 일조각, pp.197-202, pp.210-213, p.217, pp.241-244.

김호범, 1991, 일제하 식민지금융의 구조와 성격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김동철, 2001, “동래은행의 설립과 경영,” 지역과 역사 9, pp.45-80.

김동철, 2005, “부산의 유력자본가 香椎源太郎의 자본축적 과정과 사회활동,” 역사학보 186, pp.59-86.

김동철 · 차철욱, 2002, “근대부산지역 금융관련 자료와 그 성격,” 향도부산 18, pp.3-62.

김인태, 1998, “일제강점기 부산의 경제구조,” 향도부산 15, pp.101-268.

류자후, 1974, 조선화폐고, 이문사, p.468.

문정창, 1966, 군국일본조선강점삼십육년사(중), pp.164-165.

박원표, 1969, “부산금융사,” 향도부산 7, pp.17-57.

배영목, 1990, 식민지 조선의 통화 금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광운, 1972, 한국금융백년, pp.665-666, pp.710-711.

오미일, 1995, “1910~1920년대 부산지역 조선인 자본가층의 존재양상과 민족주의 운동의 전개,” 향도부산 12, pp.47-117.

윤상은, 1979, 나의 회고록, pp.13-14.

이석륜, 1990, 우리나라금융사(1910~1945), 박영사, pp.273-275.

이영훈 · 배영목 등, 2004, 한국의 은행 100년사, 도서출판 산하, pp.161-162.

조기준, 1973, 한국기업가사, 박영사, pp.109-113, p.140-148.

조흥은행, 1957, 조흥은행육십년지, pp.302-303, pp.331-334.

조흥은행, 1997, 조흥은행백년사, pp.154-158, pp.160-161, pp.165-169, p.211, p.220, p.250.

차철욱, 2001, “구포[경남]은행의 설립과 경영,” 지역과 역사 9, pp.5-43.

최상오, 2006, “일제하 조선의 일반은행에 관한 연구,” 한일경상논집 35, pp.175-207.

한국상업은행, 1957, 한국상업은행연혁사, pp.6-8, pp.23-

24.

한국상업은행, 1969, 한국상업은행칠십년사, p.58.

한국상업은행, 1998, 한국상업은행백년사, p.220, p.238.

홍순권 편, 2005, 일제시기 재부산일본인사회 사회단체단체 조사보고, 선인, pp.161-163, pp.260-261, pp.711-713.

홍순권 편, 2006, 일제시기 재부산일본인사회 주요인물 조사보고, 선인, p.99, pp.156-160.

堀和生, 1985, “朝鮮における普通銀行の成立と展開,” 社會經濟史學 49(1).

大藏省, 1939, 明治大正財政史(朝鮮編), 東京:財政經濟學會, pp.89-90, p.106, pp.128-129.

東亞經濟時報史, 1921~1925년판, 朝鮮銀行會社要錄.

東亞經濟時報史, 1927년판~1941년,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山口精, 1910, 朝鮮産業誌(下), pp.94-95, pp.118-124, pp.128-130, p.179.

澁澤榮一, 1908, 韓國ニ於ケル第一銀行, pp.341-345.

윤석범 · 홍성찬 · 우대형 외, 1996, 한국근대금융사연구, 세경사.

朝鮮殖産銀行, 1932, 朝鮮の金融, p.20.

朝鮮殖産銀行, 1939년조, 朝鮮金融事項參考書, pp.30-32, pp.34-49.

朝鮮銀行史研究會, 1987, 朝鮮銀行史.

朝鮮總督府, 1913.4.25, 官報.

朝鮮總督府, 1912, 朝鮮總督府施政年報, pp.155-156, p.165.

波形昭一, 1985, 日本植民地金融政策史の研究, 早稲田大學出版會, pp.446-447.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www.koreanhistory.or.kr(최종 열람일: 2009년 9월 20일)

교신: 김호범,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2동 산 30번지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전화: 051-510-2575, 이메일: hobkim@pusan.ac.kr

correspondence: Hobeom Kim, 30 Jangjeon-dong, Geumjeong-gu, Busan, 609-735, Tel: 051-510-2575, E-mail: hobkim@pusan.ac.kr

최초투고일 2009년 12월 2일  
 최종접수일 2009년 12월 24일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ol.12, No.4, 2009(681~701)

## **The Establishment and Merger of the Head Office Banks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ree Banks in Busan**

Hobeom Kim\* · Daerae Kim\*\* · Sujin Kim\*\*\*

**Abstract** : There were three banks that had the head office in Busan since 1912, Gyong-Nam Bank, Dong-Rae Bank and Busan Commercial Bank. This article tries to catch hold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and the merging process of three banks. The main stockholders and managers made use of the money of the banks for the enterprises that they operated. Gyong-Nam Bank was combined with Dae-Gu Bank in 1928 to be Dae-Gu Commercial & Industrial Bank. The revised bank ordinance of 1928 regulated that the head office banks had to meet the requirement of the paid-in capital, 2 million yen. Not meeting such an excessive requirement, Dong-Rae Bank was amalgamated to Ho-Nam Bank of Gwang-Ju in 1933. Busan Commercial Bank was absorbed in Cho-Sun Commercial Bank in 1935 because it couldn't get back huge loan from a company which belonged to its three main stockholders. Japanese were already the main stockholders of Cho-Sun Commercial Bank from the beginning of 1920s. The banking agencies were not able to deal with the economic fluctuations effectively, and didn't have any economic organization in support of their profit. Cho-Sun Government-General forced the head office banks to be merged to control the colonial economy.

**Keywords** : commercial bank, head office bank, Gyong-Nam(Gu-Po) Bank, Dond-Rae Bank, Busan Commercial Bank, bank ordinance, bank merger

---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Pusan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Silla University

\*\*\* Master's Course, Pusan National University